

3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n the mid-1900s, John Kenneth Galbraith shocked the field of economics when he insisted that consumers do not merely participate in the market place, they are also the product of the systematic deployment of power throughout society. Within this deployment of power, commercial media ensures that consumers adopt values and beliefs that match the general requirements of the economy. The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mass behavior patterns is Consumers engage in shared patterns of consumption because they live within an economic system that operates as a belief system. It exercises considerable control over the meaning and value of things. When the economy functions as a belief system, it establishes severe limits on a consumer's free choice. As consumers, our choices are not entirely our own. Our beliefs, values, thoughts, and emotions are highly conditioned to match the needs of the marketplace. [3점]

- 1 not driven by commercial media's agenda
- 2 a product of unconditioned personal choice
- ③ not a spontaneous reaction to random forces
- 4 not affected by the needs of the marketplace
- (5) an outcome irrelevant to the economic system



햇설

지문분석

1) In the mid-1900s, John Kenneth Galbraith shocked the field of economics when he insisted that consumers do not merely participate in the market place, they are also the product of the systematic deployment of power throughout society.

1900년대 중반에. John Kenneth Galbraith는 소비자들은 시장 에 단순히 참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권력의 체계적 인 배치의 산물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경제학 분야에 충격을 주었다.

- * 무엇이: 소비자가 어떠하다: 단지 시장에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체계적인 배치의 결과물이다.
- * '소비자가 단지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해서 '무언가 적극 적으로 다른 일도 한다'라고 할 것 같았지만, '권력이 체계적으로 배치 된 것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권력이 배치되어서, 즉, 권력의 영향으로 나타난 생산물이니. 그것은 오히려 소비자들을 매우 수동적으로 묘사 한 것이 된다. 즉, 이 문장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결과물이다'라고 소비자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 * '단지 참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더 적극적인 것을 기 대하고 글을 읽는다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글을 읽을 때, 어설픈 기대. 주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2 Within this deployment of power, commercial media ensures that consumers adopt values and beliefs that match the general requirements of the economy.

이러한 권력의 배치 안에서, 상업적 미디어는 소비자들이 그 경제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들과 부합하는 가치관들과 신념들을 채택하도 록 할 것을 확실히 한다.

- * 'Within this deployment of power'를 통해 ①의 흐름을 이어 옴. 부연설명.
- * 새로운 개념 commercial media의 등장. 그런데 commercial media가 그 경제가 폭넓게 요구하는 것들에 '부합'하는 가치관들과 신념들을 채택하게 한다고 했다. 소비자가 스스로의 신념을 따르는 것 이 아니라 media의 영향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가치관들과 신념들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 3 The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mass behavior patterns is 대중적 행동 패턴에 대한 개인의 참여는 이다.
- * 'The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mass behavior patterns'는 결국 ①의 'consumers do not merely participate ~' 부분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 그러므로 빈칸에는 소비자의 참여가 '수동적'이며, 미디어에 의해 '확실시 된' 것이며, 그 경제에 의해 일반 적으로 '요구된' 것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이 필요하게 된다.
- 4 Consumers engage in shared patterns of consumption because they live within an economic system that operates as a belief system.

소비자들은 그들이 한 신념체계로서 작동하는 경제 체제 속에서 살기 때문에 공유된 패턴의 소비에 참여하게 된다.

participate이 engage in으로 바뀌며 다시 한 paraphrasing. 경제 체제 자체가 하나의 신념이 되며,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신념을 가지고 동일한 패턴의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는 결국 우리가 '적극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5 It exercises considerable control over the meaning and value of things. When the economy functions as a belief system, it establishes severe limits on a consumer's free choice.

그것은 모든 것들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상당한 통제력을 발휘한다. 경제가 하나의 신념 체계로 기능할 때, 그것은 소비자의 자유 선택에 엄격한 제한을 확립한다.

- * 우리가 파악한 것에 대한 강력하고 직접적인 언급이 나왔다. 경제가 신념 체계로 작동할 때 그것은 소비자의 '자유'에 엄격한 '제한'을 가한 다고 했다. 즉, 소비자의 '적극성', '자발성'이 제한받게 된다는 것이다.
- 6 As consumers, our choices are not entirely our own. Our beliefs, values, thoughts, and emotions are highly conditioned to match the needs of the marketplace.

소비자로서, 우리의 선택은 완전히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념 들, 가치들, 생각들, 그리고 감정들은 시장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 시장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소비자의 '신념'이 매우 '제한' 된다고 했 다.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주제로서, 마지막으로 확실한 용어들을 사용 해 글 전체를 마무리 하고 있다.

서지분석

- 1 not driven by commercial media's agenda 삿업적 미디어의 의제에 이끌리지 않는다.
- → 일단 이 글에서 소비자의 적극성과 자발성이 제한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므로, '이끌리지 않는다'에서 우선 제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 한 상업적 미디어의 의제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미디어가 등장하긴 했으나. 그것은 단지 경제 체제의 신념이 전달되기 위한 도 구로 잠깐 언급되었을 뿐이다. 즉, agenda는 그 경제 체제의 것이어 야지 media의 것이 아니다.
- 2 a product of unconditioned personal choice 규제되지 않은 개인적 선택의 산물
- → '규제되지 않은'으로 인해 오답.
- 3 not a spontaneous reaction to random forces 임의적인 힘들에 대한 자발적 반응이 아니다.
- → '자발적 반응이 아니다'로 인해 정답이 된다. random forces는 다소 넓긴 하지만, 틀리진 않고, 이 말의 결과물이 결국 '경제 체제의 신념에 대한 조건화된 반응이다'라는 말로 연결될 수 있기에 정답이 된다.
- 4) not affected by the needs of the marketplace 시장의 필요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 '영향 받지 않는다'로 인해 오답.
- (5) an outcome irrelevant to the economic system 경제 체제에 대한 부적절한 결과물 → 결국 글의 내용이 소비자가 경제 체제의 요구에 의해 조건화되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로 인해 오답.





풀이총평

경제편의 지문으로, 다소 추상성이 있긴 했으나, paraphrase와 부연 설명이 충분히 등장하고 있기에 빈칸의 방향성을 잡기에 그렇게 어렵 지는 않았다. 다만, 우리가 빈칸을 예상했을 때, 'A이다'가 필요했다 면, 선지에서는 그것을 'B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을 조금 어 지럽혔을 뿐이다. 그런데, 다른 선지들이 오답이 되는 이유가 모두 반 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방향성을 이용해 오답을 제거해 나가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문제였다. 빈칸을 너무 완벽하게 예측 하려고 하지 마라. 3점 빈칸 문제의 빈칸은 언제나 우리의 예측보다 화려한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